

제 4 교시

사회탐구 영역(생활과 윤리)

성명

수험 번호 -

제 [] 선택

1. (가)의 갑, 을, 병 사상가들의 입장에서 서로에게 제기할 수 있는 비판을 (나) 그림으로 표현할 때, A~F에 해당되는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2020 3월 5번)

(가)	<p>갑: 어떤 사회적 가치 X도 X의 의미와 상관없이 단지 누군가가 다른 가치 Y를 가지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Y를 가진 사람에게 분배해서는 안 된다.</p> <p>을: 어떤 사람의 재화에 취득과 이전에서의 정의의 원리 또는 불의의 교정의 원리에 대해 소유권이 부여되었다면 그 소유는 정당하다.</p> <p>병: 재산 및 소득의 분배가 균등해야 할 필요는 없다. 분배는 차등의 원칙에 따라 최소 수혜자의 이익이 최대가 되도록 이루어져야 한다.</p>
(나)	

- ① A, C: 복지 국가에서 분배 정의가 완전히 실현됨을 간과한다.
- ② A, F: 정의의 다양한 영역들 간 경계가 사라져야 함을 간과한다.
- ③ B, D: 국가가 부의 분배 과정에 개입할 수 있음을 간과한다.
- ④ B, E: 공동체의 특수성에 맞는 분배 기준이 필요함을 간과한다.
- ⑤ C, E: 가상 상황에서의 정의의 원칙을 도출해야 함을 간과한다.

정답) ⑤

문제 유형 자체도 작년에 처음 출제된 유형이고 왠지 복합평등도 올해 생운에서는 처음으로 출제되는 내용이라서 낯설게 느끼셨을 것 같습니다. 선지를 끝까지 읽으셨다면 답을 고르는 것은 큰 문제가 없었을 것이지만 앞 선지들이 꽤나 걸림돌로 작용하였을 것 같습니다. 특히 1번 선지는 롤스가 복지국가와 재산소유 민주주의를 어떻게 다르게 봤는지 알아야 지을 수 있었고 4번 선지도 왠지 주장을 상당히 디테일한 부분까지 묻고 있음이 보입니다. 이 문제의 선지들은 전부 잘 숙지하시길 바랍니다. 평가원 모의고사에서도 충분히 출제 가능성 있습니다.

[윤사 2020학년도 수능 7번]

1. 사회 사상가 갑, 을의 입장으로 옳은 것은?

갑: 자본가의 수중에 있는 모든 자본을 사회 전체 구성원의 공동 재산으로 전환시키고, 그 누구의 노동도 타인에게 예속되지 않는 계급 없는 사회를 실현해야 한다.

을: 구성원들이 공유하는 의미에 따라 모든 사회적 가치들이 고유한 영역을 구성하고, 이러한 영역들의 내재적 자율성이 존중되는 복합 평등의 사회를 실현해야 한다.

- ① 갑: 이상 사회에서는 분업의 장려로 구성원의 자립성이 회복된다.
- ② 갑: 생산 수단의 사적 소유는 소수의 자본가에게 부를 집중시킨다.
- ③ 을: 영역 간 가치의 자유로운 전환은 분배의 평등을 촉진한다.
- ④ 을: 사회적 가치들은 서로 다른 사회에서도 동일한 의미를 지닌다.
- ⑤ 갑, 을: 경제적 재화는 사회 구성원의 필요에 따라 분배되어야 한다.

[윤사 2019년 4월 학평 11번]

2. 현대 서양 사상가 갑, 을의 입장으로 옳은 것은?

갑: 재산 소유 민주주의는 평등한 기본적 자유와 공정한 기회 균등을 전제로 자본 소유의 분산을 시도하며, 나아가 사회의 소수가 경제 및 정치적 삶을 통제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한다.

을: 복합 평등으로서의 정의를 추구하는 사회에서는 어떤 시민이 한 영역 내지 특정한 사회적 가치에 대해 지니는 지위를 가지고 다른 가치 영역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

- ① 갑: 모든 시민이 타인의 이익에 무관심한 사회를 추구해야 한다.
- ② 갑: 분배 정의 실현을 위해 경제적 불평등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
- ③ 을: 가치를 분배할 때에 공동체의 특수성을 고려해서는 안 된다.
- ④ 을: 영역마다 존재하는 고유한 정의의 원칙을 단일화해야 한다.
- ⑤ 갑, 을: 소수가 모든 사회적 가치를 독점하는 사회를 지양해야 한다.

[2021 수능특강 83p 5번 문제]

3. 다음 강연자가 지지할 주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정의의 원칙들은 다원적입니다. 상이한 사회적 가치들은 상이한 근거들에 따라 상이한 절차에 맞게 상이한 주체들에 의해 분배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모든 차이는 사회적 가치들 그 자체에 대해 서로 다른 주체들이 서로 상이한 방식으로 이해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것으로, 이는 역사적이고 문화적인 특수성의 필연적 산물입니다.

- ① 사회적 가치는 사회적 맥락을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
- ② 다양한 영역의 가치 분배에 단일한 기준이 적용되어야 한다.
- ③ 정의의 다양한 영역들 간에 존재하는 경계가 없어져야 한다.
- ④ 한 영역에서 우월한 사람은 다른 영역에서도 우위에 서야 한다.
- ⑤ 정의의 원칙은 개인의 정체성을 배제시킨 상황에서 도출되어야 한다.

2. 다음을 주장한 사상가의 관점에서 <사례> 속 A에게 제시할 조언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2020 3월 6번)

사람에게 사단(四端)이 있는 것은 사지를 가지고 있는 것과 같다. 사단이 있는데도 스스로 인의(仁義)를 행할 수 없다고 말하는 사람은 자기 스스로를 해치는 사람이다.

<사례>

고등학생 A는 등교 시간에 늦었지만, 길을 잃고 울고 있는 아이를 보고 도와주어야 할지 고민하고 있다.

- ① 자신과 남을 분별하지 않는 사랑[兼愛]을 실천하세요.
- ② 인간이 선천적으로 지닌 본성[性]에 따라 행동하세요.
- ③ 순선(純善)한 본성을 형성하여 도덕적인 선택을 하세요.
- ④ 인위적 규범을 버리고 자연의 도(道)에 따라 행동하세요.
- ⑤ 타고난 본성을 극복하여 측은지심(惻隱之心)을 발휘하세요.

정답) ②

2015 개정에 따라 윤리 문제에 대한 접근 파트에 동양 윤리가 대폭 강화되었습니다. 이 문제는 단순히 유교 사상임을 판단하는게 끝이 아니라 맹자의 주장임을 제시문을 통해 확인하고 맹자의 핵심 주장인 성선설, 유교에서 주장한 분별적 사랑에 대해서도 알고 있었어야 문제를 풀 수 있었습니다. 이번 모의고사는 학평이고 평가원 시험지를 봐야 올해 수능에 이 부분이 어느 정도로 깊이 있게 출제될지 알겠지만 수험생 신분에서는 나올 수 있는 모든 상황에 대비해야 하는게 맞기 때문에 꼼꼼하게 공부해 놓으셔야 할 것 같습니다.

[2015년 3월 학평 6번]

1. 다음은 서술형 평가 문제와 학생 답안이다. 학생 답안의 ㉠~㉣에서 옳지 않은 것은?

<서술형 평가>

◎ 문제: (가), (나) 사상의 인간관을 비교하여 서술하시오.

(가) 자신의 마음을 다 발휘하면 사람의 본성을 알게 되고, 본성을 알게 되면 하늘을 알게 된다. 자신의 마음을 보존하고 본성을 기르는 것이 하늘을 섬기는 것이다.

(나) 현실이 고통임을 깨닫고, 고통의 원인을 파악해서 끊어 버리며, 열반에 이를 수 있음을 자각하고, 바른 수행을 해야 한다.

◎ 학생 답안

(가), (나)의 인간관을 비교하면, (가)는 ㉠인간을 순선한 본성을 부여받은 존재로 보며, ㉡자신의 본성을 현실에서 발현하는 삶을 중시한다. 이에 비해 (나)는 ㉢인간의 불성을 타고난 존재로 보며, ㉣고정된 자아의식을 바탕으로 자비를 실천하는 삶을 중시한다. 이상적 인간상으로 ㉤(가)는 인의를 실현하는 군자를, (나)는 진리를 깨닫고 중생 구제에 힘쓰는 보살을 제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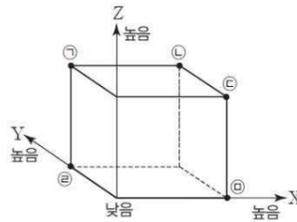
- ① ㉠ ② ㉡ ③ ㉢ ④ ㉣ ⑤ ㉤

[2021 수능특강 27p 1번 문제]

2.갑의 입장에 비해 을의 입장이 갖는 상대적 특징을 그림의 ㉠~㉣ 중에서 고른 것은?

갑: 어린 아이가 물에 빠지는 상황을 보게 되면 모두 놀라고 측은해하는 마음을 갖게 된다. 그것은 어린아이의 부모와 친분을 맺으려고 해서도 아니고, 친구들에게 칭찬을 바라서도 아니다. 이러한 상황을 본다면, 측은해하는 마음이 없으면 사람이 아니고, 부끄러워하고 미워하는 마음이 없으면 사람이 아니고, 사양하는 마음이 없으면 사람이 아니고, 시비를 가리는 마음이 없으면 사람이 아니다.

을: 위대한 도(道)는 이름이 없으며 위대한 변론은 말이 없다. 위대한 인(仁)은 편애하지 않고 위대한 겸손은 밖으로 드러나지 않으며 위대한 용기는 사람을 해치지 않는다. 도가 훤히 들여다보이면 도가 아니고 말로 변론만을 위한 것이면 부족하다. 알지 못함을 알고 멈출 줄 아는 사람이 완전한 사람이다.



X: 영토가 작고 인위적 문명의 발달이 없는 무위(無爲)의 사회를 강조하는 정도
 Y: 인의예지(仁義禮智)의 덕목을 사회적 규범으로 강조하는 정도
 Z: 존비(尊卑)와 친소(親疏)의 구별을 전제로 한 사랑을 강조하는 정도

- ① ㉠ ② ㉡ ③ ㉢ ④ ㉣ ⑤ ㉤

3. 갑, 을, 병 사상가들 모두가 질문에 옳게 대답한 것은? [3점]
(2020 3월 9번)

갑: 형벌이 지속적 효과를 가질 때 범죄를 더 잘 예방할 수 있다. 중신 노역형이 사형보다 범죄 억제에 효과적이다.
 을: 형벌은 정언 명령이다. 살인자는 사형에 처해져야 한다. 사형의 불법성을 주장하는 것은 법의 왜곡이다.
 병: 형벌의 목적은 공리의 원칙에 따른 모든 위법 행위 방지, 최악의 위법 행위 방지, 해악 감소, 비용 최소화이다.

	질문	대답		
		갑	을	병
①	형벌은 범죄자의 인격을 존중하며 실시되어야 하는가?	예	아니요	예
②	형벌은 사회적 선을 위하여 범죄자에게 부과되어야 하는가?	예	아니요	예
③	사형은 시민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 허용되어야 하는가?	아니요	예	예
④	형벌의 목적은 시민들의 범죄 예방으로 제한되어야 하는가?	아니요	예	아니요
⑤	형벌의 정도는 위법 행위에서 얻는 이득의 가치를 능가하지 말아야 하는가?	아니요	아니요	예

정답) ②

원래부터 비중 있게 출제되던 형벌론 파트입니다. 이 문제는 칸트가 형벌을 응보의 관점에서 보았으며, 다른 선의 축진을 위해 가해질 수 없다고 보았음을, 베카리아와 벤담 모두 공리주의적 관점에서 최대다수의 최대행복에 따라 형벌이 부과되어야 함을 주장했음을 알아야 풀 수 있었습니다. 기출에서 반복적으로 나왔던 내용입니다. 혹시 이 문제를 틀리셨다면 기출 학습이 제대로 안 되어있는 것이니 심화 커리나 사설 콘텐츠 학습 전에 기출 분석 먼저 다시 하시길 바랍니다.

[2018학년도 6평 19번]

1. 갑, 을 사상가들의 입장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갑: 범죄에 대한 형벌은 오직 법을 통해서만 가능하며, 이러한 권한은 사회계약으로부터 나온다. 형벌은 강도보다 지속성을 중시해야 한다. 사형은 한 시민에 대한 국가의 전쟁이기 때문에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
 을: 범죄에 대한 형벌은 사회의 최대 행복을 저해하는 경향에 비례하여 가해져야 한다. 형벌의 목적은 범죄의 예방과 일반인에 대한 경고에 있다. 사형은 그 범죄자가 살아 있는 것이 나라 전체를 중대한 위협에 처하게 할 경우나 적합한 형벌이다.

<보 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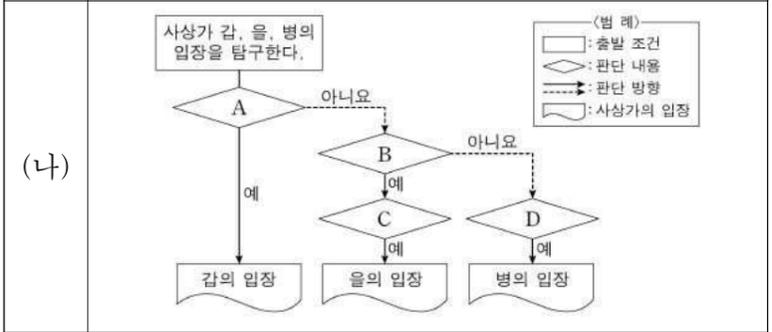
ㄱ. 갑: 범죄 억제력 측면에서 사형보다 우월한 형벌이 존재한다.
 ㄴ. 을: 사형 그 자체는 악이지만 동해보복을 위한 필요악이다.
 ㄷ. 을: 형벌이 초래할 해악이 예방할 해악보다 커서는 안 된다.
 ㄹ. 갑, 을: 형벌은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위해 집행되어야 한다.

- ① ㄱ, ㄷ ② ㄴ, ㄷ ③ ㄴ, ㄹ
 ④ ㄱ, ㄴ, ㄹ ⑤ ㄱ, ㄷ, ㄹ

[2017학년도 수능 10번]

2. (가)의 갑, 을, 병 사상가들의 입장을 (나) 그림으로 탐구할 때, A~D에 들어갈 옳은 질문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가)
 갑: 모든 형벌은 강도, 지속성, 보편성을 근거로 과도하지 않게 집행되어야 한다. 형벌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처벌을 본보기로 삼아 전체의 효용을 증진하는 것이다.
 을: 모든 인간은 목적으로 대우받아야 한다. 사형은 살인범의 인간성을 훼손할 수 있는 모든 가혹 행위로부터 살인범의 인격을 존중하는 것이다.
 병: 모든 사람들에게 살인범의 끝없는 비참한 상태를 보여주는 것이 사형보다 범죄 예방에 효과적이다. 형벌의 강도보다 지속성이 사람들에게 더 큰 영향을 준다.



<보 기>

ㄱ. A: 사회 전체의 이익보다 살인범의 생명권을 우선해야 하는가?
 ㄴ. B: 사형은 범죄 억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응보적 처벌인가?
 ㄷ. C: 사형은 살인죄에 대한 동등성 원리에 부합하는 정당한 처벌인가?
 ㄹ. D: 사형은 중신형에 비해 처벌의 사회적 효용이 낮은 형벌인가?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ㄷ, ㄹ
 ④ ㄱ, ㄴ, ㄹ ⑤ ㄴ, ㄷ, ㄹ

4. (가)를 주장한 사상가의 입장에서 (나)의 갑, 을, 병에게 제기할 수 있는 적절한 비판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가)	우리는 세계가 하나라는 생각에 기초하여 이익 평등 고려의 원칙에 따라 국가적인 경계를 넘어서 원조를 의무적으로 실천해야 한다.
(나)	갑: 우리는 모든 사람을 배려할 수 없다. 우리는 배려자로서 우리 앞의 타자를 먼저 만나야 한다. 을: 원조는 질서 정연한 사회체제를 설립하려는 만민들을 돕는 큰 기획의 한 방안이다. 병: 개인은 정당하게 얻은 소유물에 대해 타인의 고통과 무관하게 절대적인 소유 권리를 지닌다.

<보 기>

ㄱ. 갑은 친소 관계를 고려하지 않고 원조해야 함을 간과한다.
 ㄴ. 을은 공리의 원칙을 해외 원조에 적용해야 함을 간과한다.
 ㄷ. 병은 원조를 위해 재산의 일부를 기부해야 함을 간과한다.
 ㄹ. 갑, 을은 원조 주체가 개인으로 한정되어야 함을 간과한다.

-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ㄷ, ㄹ
 ④ ㄱ, ㄴ, ㄷ ⑤ ㄴ, ㄷ, ㄹ

정답) ④
 역시나 비중 있게 출제되는 해외원조 문제입니다. 특이한 점은 싱어의 입장에서 배려윤리 사상가 나딩스를 비판하는 유형이 출제되었다는 것입니다. 최근에는 배려윤리가 단독으로 문제에 출제되기 보다는 다른 단원(환경윤리 등등)과 엮여서 많이 출제되기도 합니다. 이 트렌드를 잘 반영한 좋은 문항인 것 같습니다. 올해 수능특강 177p에 싱어가 '원조를 통해 얻는 이익이 비용보다 클 경우 어떤 공동체의 구성원인지에 관계없이 도움을 주어야 한다'고 주장했음이 서술되어있습니다. 올해 연계교재에도 있고 중요한 개념이니 충분히 평가원에도 출제가능성 있습니다. 틀리신 분들은 꼭 숙지하고 넘어가시길 바랍니다.

[2018학년도 9평 18번]

1. 갑, 을 사상가들의 입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갑: 풍요로운 사회의 부유한 사람들은 빈곤으로 고통받는 전 세계 사람들을 위해 소득의 일부를 기부해야 한다. 이것은 모든 사람의 이익을 평등하게 고려하여 전 지구적인 의무를 공정하게 분담하는 것이다.
 을: 질서 정연한 만민은 불리한 여건으로 고통을 겪는 사회를 원조해야 한다. 이것은 고통을 겪는 사회가 자신의 문제를 합당하게 관리할 수 있게 도와서 그 사회가 질서 정연한 만민 사회의 구성원이 되도록 하는 것이다.

- ① 갑: 원조 대상자들의 국적은 도덕적으로 중요하지 않다.
 ② 갑: 원조는 인류의 고통 감소와 쾌락 증진을 위한 것이다.
 ③ 을: 원조는 일정한 목표를 넘어서면 중단될 필요가 있다.
 ④ 을: 원조를 통해 만민의 복지 수준을 일치시킬 필요는 없다.
 ⑤ 갑, 을: 원조는 빈곤한 모든 나라를 도와야 할 도덕적 의무이다.

[윤사 2020학년도 6평 2번]

2. 다음 서양 사상가의 입장으로 옳은 것은?

- 인간의 도덕성 발달은 정의 윤리가 놓친 배려라는 주제를 중심으로 새롭게 조직되어야 한다. 배려하는 사람은 상대방의 처지에 걸맞는 도움을 주어야 하며, 배려 받는 사람 또한 상대방의 도움을 진심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하다.
- 윤리적 배려는 자연적 배려가 발휘되기 힘들 때 요청된다. 의무감에서 남을 돕는 윤리적 배려보다는 욕구와 성향에 따라 남을 돕는 자연적 배려가 도덕적으로 선호된다.

- ① 배려 윤리는 사람들 간의 상호 의존성과 유대감을 중시한다.
 ② 배려보다는 논리적 추론을 통해 도덕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③ 자연적 배려는 이성애에 의해 동기가 부여됨으로써 실천된다.
 ④ 자연적 배려는 모성애와 같은 윤리적 배려에 근거하고 있다.
 ⑤ 정의 윤리와 배려 윤리는 서로 배타적이어서 양립할 수 없다.

5. 다음을 주장한 사상가가 긍정의 대답을 할 질문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우리는 시민 불복종을 통해 우리 입장을 호소할 권리를 갖는다. 우리가 저항하는 부정의는 시민의 평등한 자유와 공정한 기회 균등을 분명히 위반한 것이다. 거의 정의로운 국가에서는 합당한 저항에 대한 보복적 억압은 없지만 우리 행위가 효과적인 호소가 되도록 계획해야 한다. 그리고 그 행위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게 합리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보 기>

- ㄱ. 시민 불복종은 거의 정의로운 사회에서 정당화될 수 있는 합당한 행위인가?
- ㄴ. 시민 불복종은 평등한 자유의 원칙에 어긋나는 법만을 대상으로 해야 하는가?
- ㄷ. 시민 불복종은 민주 사회를 특징짓는 공공의 정의관을 바탕으로 생겨나는 것인가?
- ㄹ. 시민 불복종은 입헌 체제를 유지함에 있어 합법적이며 도덕적으로 옳은 방식인가?

- ① ㄱ, ㄷ ② ㄱ, ㄹ ③ ㄴ, ㄹ
- ④ ㄱ, ㄴ, ㄷ ⑤ ㄴ, ㄷ, ㄹ

정답) ②

롤스의 시민불복종도 변별력 있는 문항으로 출제되는 소재입니다. 특히 ㄴ선지는 정의의 원칙 중 1원칙과 2-1원칙을 위반한 법이 시민 불복종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알아야 지을 수 있었습니다. ㄹ선지도 시민불복종이 위법이지만 도덕적으로 옳은 일임을 알아야 정오를 판단할 수 있었습니다. 이 문제는 친절하게도 제시문에 힌트를 다 줘서 독해만 잘하셨다면 잘 푸셨겠지만 제시문에 나와 있지 않아도 판단할 수 있어야 하는 선지입니다. 최근 생운은 상당히 지역적인 부분까지 물어서 변별 포인트를 주고 있습니다. 틀리신 분들은 이 내용 꼭 체크하시길 바랍니다. 평가원에도 나올 수 있습니다.

[2020학년도 9평 7번]

1. 갑, 을 사상가들의 입장으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갑: 시민 불복종은 거의 정의로운 사회에서 그 체제의 합법성을 인정하는 시민들에 의해서만 생겨난다. 그것은 개인이나 집단의 이익이 아니라 다수의 정의감에 근거해야 한다.
 을: 우리는 먼저 인간이어야 하고, 그다음에 국민이어야 한다. 법이 형평성보다는 독단에 치우쳐 있다고 판단된다면, 우리는 순순히 따르지 말고 양심에 따라 저항해야 한다.

<보 기>

- ㄱ. 갑: 시민 불복종은 민주 헌법의 의도에 어긋나는 항거이다.
- ㄴ. 갑: 정의 원칙도 시민 불복종의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는다.
- ㄷ. 을: 법보다 정의에 대한 존경심을 함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ㄹ. 갑, 을: 시민 불복종은 위법 행위이지만 하나의 권리이다.

- ① ㄱ, ㄴ ② ㄴ, ㄷ ③ ㄷ, ㄹ
- ④ ㄱ, ㄴ, ㄹ ⑤ ㄱ, ㄷ, ㄹ

[2017학년도 6평 16번]

2. 갑, 을 사상가들의 입장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갑: 법이나 정책은 원초적 입장에서 합의한 정의의 원칙을 위반해서는 안 된다. 시민 불복종은 제1 원칙인 평등한 자유의 원칙이나 제2 원칙 중 공정한 기회 균등의 원칙에 대한 현저한 위반에 국한되어야 한다.
 을: 법에 대한 존경심보다는 먼저 정의에 대한 존경심을 길러야 한다. 법에 대한 존경심 때문에 선량한 사람조차도 불의의 하수인이 될 상황이라면 그 법을 어겨라. 양심에 따라 그 법에 저항하라.

- ① 갑은 불복종이 공개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없다고 본다.
- ② 갑은 불복종에 따른 처벌을 감수하는 것이 옳지 않다고 본다.
- ③ 을은 양심에 어긋나는 모든 법에 불복종해야 한다고 본다.
- ④ 을은 공동체의 정의감을 불복종 정당화의 최종 근거로 본다.
- ⑤ 갑, 을은 불복종을 정의의 실현을 위한 합법적 행위로 본다.

[2019학년도 수능 18번]

3. 다음 사상가의 입장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거의 정의로운 사회는 심각한 부정의가 존재할지도 모르지만 일종의 민주적 정부의 형태를 갖춘 사회이다. 이러한 사회에서 정의의 원칙들은 자유롭고 평등한 인간들의 자발적인 협동의 기본 조항으로서 공공적으로 인정된다. 그래서 시민 불복종에 참여함으로써 사람들이 의도하는 것은 다수의 정의감에 호소하여 자유로운 협동의 조건이 침해되었다는 것을 정당하게 알리는 것이다.

<보 기>

- ㄱ. 시민 불복종은 정당한 폭력으로 다수의 정의감에 호소하는 행위이다.
- ㄴ. 시민 불복종은 사회적 협동의 기본 원리에 근거한 양심적 항거이다.
- ㄷ. 시민 불복종은 도덕적으로는 옳지 못하지만 불가피한 위법 행위이다.
- ㄹ. 민주적 정부의 법도 부정의하면 시민 불복종의 대상이 될 수 있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ㄹ
- ④ ㄱ, ㄷ, ㄹ ⑤ ㄴ, ㄷ, ㄹ

6. 다음을 주장한 사상가가 지지할 견해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2020 3월 17번)

- 사회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사람들의 이기심을 억제해야 한다면 사회는 이기심에 대한 제재로 갈등과 폭력까지도 승인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 가장 친밀한 개인들 간의 관계에서는 필요치 않은 강제적 수단이 집단 간의 조화와 정의의 확립을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하다. 강제력의 요소는 윤리적으로 정당한 범주에 귀속시킬 수 있다.

<보 기>

- ㄱ. 집단 이기주의는 집단 구성원의 이성적 판단을 방해한다.
- ㄴ. 개인의 합리성이 제고되면 집단의 갈등을 해소할 수 있다.
- ㄷ. 집단 간의 갈등은 개인의 도덕적인 문제로 환원될 수 있다.
- ㄹ. 폭력을 수반하는 강제력도 도덕적으로 정당화될 수 있다.

- ① ㄱ, ㄷ ② ㄱ, ㄹ ③ ㄴ, ㄷ
- ④ ㄱ, ㄴ, ㄹ ⑤ ㄴ, ㄷ, ㄹ

정답) ②

니부어의 사회정의도 어렵게 출제되는 파트입니다. 제시문으로 니부어임을 판단하는 것도 어렵지 않으셨을거고 선지도 자주 보이던 내용이라 개념만 제대로 하셨다면 쉽게 푸셨을 겁니다. 다만 ㄹ선지에서 폭력도 도덕적 선의지의 통제를 받는다면 허용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주세요!

[2020학년도 6평 5번]

1. (가)를 주장한 사상가의 입장에서 (나)의 A, B, C의 행위에 대해 제기할 수 있는 적절한 비판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가) 이성적 능력의 향상을 통해 사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믿는 사람들도 있다. 그러나 집단의 이기적 충동의 힘이 이성보다 강력하기 때문에 이성의 힘만으로는 사회 집단 간의 갈등을 해결하기 어렵다. 그러한 갈등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정치적인 힘이 필요하다.

(나) ○ A는 정치적인 힘 대신에 양심에만 호소하는 잘못을 범했다.
○ B는 봉건 체제를 타파하기 위해서 개인의 양심과 결단에 근거하여 독자적으로 테러를 감행하였다.
○ C는 식민 지배에 반대하면서 자국민들과 단결하여 비폭력적으로 지배국의 상품 불매 운동을 전개하였다.

<보 기>

- ㄱ. A는 정치적인 힘 대신에 양심에만 호소하는 잘못을 범했다.
- ㄴ. B는 자신의 의도를 조직적인 정치적 저항과 연결시키지 못했다.
- ㄷ. C는 비폭력적으로 대응하여 정치적인 힘을 활용하지 못했다.
- ㄹ. A와 B는 집단적 저항이 필요함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

- ① ㄱ, ㄷ ② ㄴ, ㄹ ③ ㄷ, ㄹ
- ④ ㄱ, ㄴ, ㄷ ⑤ ㄱ, ㄴ, ㄹ

[2021 수능특강 82p 1번 문제]

2. 다음 사상가의 입장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모든 인간의 집단은 개인과 비교할 때 충동을 올바르게 인도하고 때에 따라 억제할 수 있는 이성과 자기 극복 능력,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욕구를 수용하는 능력이 훨씬 결여되어 있다. 게다가 집단을 구성하는 개인들이 개인적 관계에서 보여 주는 것에 비해 훨씬 심한 이기주의가 모든 집단에서 나타난다.

<보 기>

- ㄱ. 집단들 간의 문제는 개인 문제로 환원될 수 있다.
- ㄴ. 집단은 개인에 비해 이성과 자기 극복 능력이 결여되어 있다.
- ㄷ. 집단의 도덕성은 합리성과 선의지를 통해 충분히 유지할 수 있다.
- ㄹ. 집단들 간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강제력이 사용될 수 있다.

-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고생하셨습니다:)

<정답>

1-1 ②

1-2 ⑤

1-3 ①

2-1 ④

2-2 ⑤

3-1 ⑤

3-2 ③

4-1 ⑤

4-2 ①

5-1 ③

5-2 ③

5-3 ③

6-1 ⑤

6-2 ④